

## 제 205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특별기획강연

주제 : 세계 속의 한일,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

강사 :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駐 한국공사, 駐 인도·중국대사 역임)

시간 : 2017. 03. 21. 화. 12:30 - 14:00

2017년 3월 21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축관(140-2동) 국제회의실에서 제205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특별기획강연 전 주중일본대사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초빙강연 및 대담이 열렸다. 약 20여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속의 한일,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라는 주제로 전 주중일본대사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가 강연을 진행했다. 다니노 사쿠타로는 도쿄대학(東京大學) 법학부를 졸업한 뒤, 외무성에 입성하여 駐 한국공사, 駐 인도 및 중국대사를 역임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다니노 사쿠타로 전 주중대사는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강연을 진행하였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국정 혼란에 대해서이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국정 혼란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일 각종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많은 일본 국민들이 우려와 함께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런 한국과 일본과의 양호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평화관계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관계이다. 한일 양국은 대국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중층적인 또는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한일 양국 간의 국민감정이다. 90년대 후반 경부터 한일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위안부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친밀감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존재한다.

네 번째 주제는 세계 속의 한일관계에 대해서이다. 그는 세계 속의 한일 관계에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해서 공헌하는 한일 관계로 시야를 넓혀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 안전보장, 경제, 사회 분야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UN개혁 등이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원자력 협력, 사회 분야에서는 동아시아의 공통 과제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역사'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니노

사쿠타로 전 주중대사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일본의 평론가였던 故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와 중국의 故 진의(陳毅) 부수상의 언설을 소개하였다. 모두다 중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 일본과 한국에도 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제 조약의 동아시아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유럽에서 서독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엘리제 조약(1963)은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작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한국의 상황이 안 좋아서 취소가 되었다. 그는 언젠가는 유럽의 엘리제 조약과 같은 것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나라(奈良), 경주(慶州), 시안(西安)으로 정하여 나라 조약, 경주 조약, 시안 조약을 체결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대담>

사회자 :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부장), 대담자 : 다니노 사쿠타로(前 주중대사), 김석우(現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남기정 : 두 분이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요?

김석우 :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1년~83년은 전두환 대통령 시기로 굉장히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동경에서 총리부의 외교 담당 비서관에 있었는데, 우리를 비공식으로 응원하러 오셨을 때 제일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서울로 와서 주한 특명 공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인상은 우리 말로 대인의 인상으로, 철학적 시야가 넓어 보이셨습니다. 보통 일본 분들은 디테일이 강한데, 이분은 시야가 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니노 사쿠타로 : 처음 만났을 적 인상은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우리는 상호간에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석우 차관님과의 만남은 그런 것 보다는 밤이 되면 소주를 마시면서 차관님이 패티김의 이별을 부르실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골프 기억도 많이 납니다. 제 선배님들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과서 문제, 전두환 대통령의 차관 문제 등으로 굉장히 고생 많았지'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정말 고생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도 있었고 소련에도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친구 만들기 어렵거든요. 한국에서는 친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남기정 : 이제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대중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시작한 것이 1979년도인데, 그때 일본의 중국 ODA라는 것은 '언타이드(untied)'론으로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었고, 일본 기업이 관여한 것은 20프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일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한국 기업도 그 수주에 관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79년 바로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중 ODA가 간접적으로 한국에 흘러 들어왔거나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되었거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니노 사쿠타로 : 타이드라는 것은 일본이 돈을 제공했을 때, 일본의 물건, 일본의 서비스를 전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언타이드론이라는 것은 돈을 제공하지만 중국이 그것을 받으면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오히라(大平) 내각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일본 차관을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원조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돕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언타이드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엔 차관은 2008년에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업도 이용되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중국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델리 매트로는 일본의 엔 차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한국 차량을 샀습니다. 성능 좋고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차량이지만 조건 없이 지원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남기정 : 본격적으로 한일관계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980년도 한일 교과서 문제입니다. 당시 교과서 문제가 전면 대두했었는데, 일본의 스즈키 내각 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와 미야자와(宮澤) 담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니노 대사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석우 차관님께서 당시 한국 대사관의 분위기나 해결 노력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노 사쿠타로 : 교과서 문제는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82년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우호 친선을 위해서 이러한 비판을 주변 국가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책임 하에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한 나라의 교과서에 대해서 외국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스즈키 총리의 결단과 미야자와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차이가 있는 것은 양국간의 관계를 걱정하는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어떤 교과서를 사용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된 외국의 의견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공통된 입장에서 교과서를 만듭니다. 언젠가 그런 공통된 역사교과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기 선생님들에게 맡기겠고, 이런 문제를 정치문제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삼국 간의 논의 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일단 맡기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김석우 : 그 당시 외교관에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력차이는 15대 1이었습니다. 일본하고 교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과서 문제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다행히 국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반일만 했었는데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금을 해서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만드는 등 당시 우리들은 역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남기정 : 감사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한일 역사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 처음 인식하셨고, 외교적 문제로 논의해야 되겠다고 언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91년도 8월달에 중국 무역회담 차 갔다 오시면서 도쿄를 일부로 방문하셨다는데, 그 경위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우 : 실은 위안부라는 제도는 저희가 어렸을 때 선배나 부모세대로부터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입어도 자기들이 다 안고 죽었을 수밖에 했습니다. 86년 권인숙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어린 후배 여성들에게 똑같은 희생을 입지 않도록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을 떳떳하게 공개한 것이었고, 사회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91년 8월에 김학순 피해자가 공식으로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말에 제가 다니노 국장님에게 이 문제를 외교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 그 후에 외교문제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정 : 두 분이 다 증언록 또는 회고록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다니노 국장님도 굉장히 구절 구절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 고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김석우 차관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그 때 심정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미야자와 총리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 드리셨는지 그때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다니노 사쿠타로 : 이것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표면화되고, 일본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로 된 것은 미야자와 총리 시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첫 번째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본 정부로서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미야자와 총리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관계 부처들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노(河野)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고노담화를 계승해서 일본 정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정치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한 가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아시아 여성 기금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긴 보상을 해야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금을 만들어 많은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매칭하는 정부 예산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전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고노담화 여성기금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고 해서 그러한 약속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총리의 편지를 보냈고, 네덜란드 여성들은 총리의 편지가 더 감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생각 없는 소수파가 하는 이야기는 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한국측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돈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기정 :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이 시기를 회고하고 계시고 있는데, 당시 합의에 대해서 서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당시에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말들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합의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우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국장이었는데 저 자신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일본 정부나 국가가 그대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인정해주면 미래에 일본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김영삼 대통령 바로 옆에 있을 때도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먹고 살만 한 것은 한국정부가 해 줄 수 있다. 일본은 진실한 역사 인정만 해 주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당시 여야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국가가 하든지 국민이 하든지 일본이 진솔한 미안한 감정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83년 처음 만나 뵈고, 엄청 힘들게 일본과 교섭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대일 교섭이 4-50개가 되는데, 거의 철야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를 가지고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국장 때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믿어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질적인 차원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외교 관계에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쉬운 건 과장 손에서 마쳐지고 아주 중요한 것은 장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천지가 어러울 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한국 국내 정서에서 반일과 친일로 나눠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냥 두기만 해도 민간 차원에서 잘 지낼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 : 당시 교섭에 대한 평가, 작년 교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니노 사쿠타로 : 저는 오히려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작년에 양국의 외무장관들 사이에서 결론이 내려졌고, 물론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관여해서 결론을 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의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에 연연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까지는 이 아시아 여성 기금을 활용해서 양국간 사이에 있어서는 다시 이것을 거론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일본과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약속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너무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한일관계가 이어지기 어려워집니다. 혁명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역적인 단어에 일본 정부가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성의 존엄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에서 매년 할머니들께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놀랐던 것이 도쿄지국장을 하시고 여러 차례 일본을 왔다 갔던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도쿄에서 특파원을 몇 번했는데 그렇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들고 다닐 문제는 아니니까요.

남기정 : 일본정부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비판하는 것은 안 되겠다. 알고서 비판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김석우 : 한국 입장에서는 Rule of law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너무 민족적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서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한일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국까지도 법을 지키는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노 사쿠타로 : 젊은 분들 중에는 외교관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자신의 전문성을 외교관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치가와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쿄, 서울만 아니라 워싱턴이나 유럽이나 중국 이런 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가 한일 문제만이 아니라는 마음 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대국입니다. 양국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